

연포장산업의 선구자

박태원



국내 최초로 담배 은박지 생산을 시작한 삼진알미늄 (현 삼진화학의 전신)을 창업했던 박태원 회장. 그는 남다른 해안과 사명감으로 30년 가까이 포장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국내 연포장산업의 근대화를 선구해왔다. 대부분 '손포장'에 의지했던 60년대 포장산업계 풍토에서 알루미늄박지 생산을 시작으로 그라비아인쇄기, 핫멜트기 등 선진설비를 국내에 맨 처음 도입해 제과류 등 식품포장 자동화의 밑거름을 뿌렸다.

요 근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것들 중에는 기업 총수들의 자서전류와 그들의 경영철학 등을 쉽고 평이한 어법으로, 실지 예를 들어가며 일련의 짙막한 단편들 속에 담아낸 책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 책들에는 대개 가난한 한국경제 아래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기까지 갖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남다른 경륜과 불굴의 의지, 사업 성공의 뒷이야기들이 담담하지만 꽤는 감동어린 필치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책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경영주들이 저자로 되어 있다. 더구나 아직도 '현역'으로서 그 저자들은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한평생 중소기업을 이끌어 온 사람의 이야기, 또는 후진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준 기업경영인의, 하다못해 회고록이나 수기류 같은 책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거칠게 논리를 비약시켜 본다면 기업관련 저술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업성공 스토리가 마치 신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체는 이 땅의 이름없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땀과 정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히 업종의 특성 때문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포장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분명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 뜻에서 월간 『포장정보』는 앞으로 포장산업에 오래 몸담아 온 포장인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의 궤적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달에는 한국연포장산업의 산증인인 박태원 회장(72)을 만나본다.

박태원 회장은 오늘날 포장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유력 포장인들을 배출한 삼진알미늄(현 삼진화학주식회사 전신)을 창업해,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의 역사를 일구어 온 주인공의 한 사람이다.

“별로 한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인터뷰가 가당치 않다”고 지극히 겸양의 미덕을 보였지만, 기자가 해화동 자택을 찾아 갔을 때 문 밖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자택인 한옥은 넓고 깨끗했다. 또 잘 다듬어진 정원은 박태원 회장의 정갈한 성품을 엿보이게 해주는 요소 같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었겠지만, 알루미늄박지를 전량 수입해 쓰고 있었지요.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도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삼진알미늄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1962년 삼진알미늄을 창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아직 불모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수입해 썼으며, 포장방법도 거의 ‘손포장’에 의지해 제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포장하는 시기였다.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젊은 엘리트 박태원은 삼진알미늄을 창업하기 전 몇 개의 회사에서 이력을 쌓는다. 그가 처음 입사한 곳은 당시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무역진흥주식회사’였는데, 여기서 그는 조사업무를 맡아 보았다. 무역진흥주식회사는 지금의 KOTRA와 비슷한 사업을 했던 회사였는데 당시로서는 꽤 규모가 큰 곳이었다. 그는 각종 조사업무를 하는 한편 순보로 정보지를 발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계 동향이라든가 통계수치에 누구보다도 밝았다.

그뒤 ‘삼풍물산’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역업무를 담당해 각종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종래 반생을 포장산업에 몸담게 되는데, 삼진알미늄 창업 직전 ‘삼양지업’이라는 곳에서 지류관계 업무를 6년 가까이 했다. 삼양지업은 당시 신문용지를 생산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의 업무경험이 삼진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그가 삼양지업에 몸담고 있을 때 독일의 관련회사들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알루미늄박 회사를 시작해야겠다는 힌트를 얻게 되었다. 물론 당시 국내에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창업의 주객관적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다.

독일로부터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박 합지기를 들여와 위에서 말한 대로 62년에 삼진알미늄을 창업하고 알루미늄박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담배은박지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썼는데 삼진알미늄이 국내 최초로 생산, 전매청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담배포장지 개봉이 용이하도록 두른 따라든가 껌포장지 생산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시 봉지류 과자제품이라든가 식품의 포장 등이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삼진에서 롤 상태의 포장지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차츰 제과·식품산업의 포장자동화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삼진알미늄은 알루미늄박지 생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연포장재로 그 영역을 넓혀 갔는데, 그것은 포장재의 발전없이 식품산업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었고, 또 그만큼 수요가 계속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포장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식품산업이었다는 진술은 수정되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식품산업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삼진알미늄과 같은 선구적인 포장산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다.

삼진알미늄이 식품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박태원 회장의 혜안과 부단한 정보수집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태원 회장은 일본을

수시로 다니며 포장관련 지식을 섭렵했고, 멀리 미국이나 구라파 등지도 부지런히 다니며 기술습득을 위해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게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일에 미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직 좋은 물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욕심 하나였지요.”

이러한 장인정신을 가진 포장인이 있었기에 국내 포장산업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도약을 계속할 수 있었을 터다.

삼진알미늄은 계속 성장가도를 달리며 설비분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삼진에는 몇 개의 국내 1호기 설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맨 먼저 얘기한 알루미늄박 합지기가 있고, 그리고 그라비아인쇄기도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 들여왔습니다. 또 핫멜트기도 국내 1호 설비이지요.”

삼진이 누구보다 먼저 선진 설비를 갖추자 업계에서는 삼진을 모델로 삼고 기계설비라든가 기술의 노하우를 훔내내게 되었다.

한편, 삼진알미늄이 연포장산업에서 개척자적인 길을 걸어 가는 동안 67년도 무렵에 박태원 회장은 ‘삼진필프’라는 또다른 기업을 설립,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그당시 우리나라는 필프를 죄다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었지요.

뭐랄까, 국가적인 사명감이랄까 의분 같은 것이 생겨 삼진필프를 설립하고 고지 재활용 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 회사도 AID기금을 빌어 세웠는데, 당시 관계자들도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박태원 회장은 백퍼센트 필프 수입을 극복하기 위해 삼진필프를 설립, 고지 재활용 사업에 뛰어 들었다. 미국으로부터 주로 헌신문지를 들여와 먹을 빼서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사업이었는데, 요근래 와서야 고지 재활용 목소리가 높은 것을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을 터이다.

국가적으로도 좋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삼진필프는 근 십 년만에 박태원 회장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 아이디어가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주변의 인식이라든가 연관 분야의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활용하기 위한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가 턱없이 높아 기업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삼진필프를 끝까지 살리지는 못했지만 삼진필프가 업계에 미친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기계설비라든가 고지 재활용 기술, 약품 개발 등 삼진필프의 앞선 노력이 업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삼진알미늄과 삼진필프, 박태원 회장이 경영해왔던 대표적인 이 두

개의 회사는 이제 그의 손에서 떠나 있다. 삼진알미늄은 업계 처음으로 흑자도산을 맞아 지난 82년 한국화약그룹에 인수되어 지금은 삼진화학주식회사로 변모해 있다. 그러나 그가 척박했던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텃밭을 오늘날처럼 기름진 토양으로 일구어 온 공로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불필요한 자재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포장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재활용이나 재생이 불가능하면 소각이 용이한 포장재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다도 인쇄도 지양하고, 필름도 가능하면 겹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국내 포장산업의 활로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해 조용히 여생을 정리할 고회를 넘긴 나이이지만 여전히 박태원 회장은 포장인으로 남아 있다. 아니 그가 포장산업에 뿌린 씨앗은 이제 싱싱한 열매로 거두어지고 있을 터이다.

박태원 회장은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은 현재 보영화학을 경영하고 있고, 차남은 미 플로리다대학에서 고분자학 교수로 있다.

끝으로 『포장정보』가 단편적 정보를 실는 데에 그치지 말고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하여 적극 힘써 달라는 당부를 귀담아 듣는다. <우> ▣